

제자 디모데

Timothy the Disciple

사도행전 16:1-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7월 21일 설교

¹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로 부친은 헬라인이라. ²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³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앎이라.

청년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습니다. 이름을 원문 그대로 보면 ‘티모쎄오스’입니다. 쎄오스는 하나님이지요. 티모는 티마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존경한다, 귀하게 여긴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는 섞였습니다 (행 16:1-5). 우선 핏줄이 섞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신앙도 섞였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인데 영어로는 유니스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딤후 1:5). 이들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해 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왔을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48년, 51년).

루스드라에서 세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행 14:8-23)?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극과 극의 경험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다리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고쳐 걷게 만들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바나바 하고 바울을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뜰어말려 못 하게 하긴 했지만 신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마을에서 유대인들이 들이닥쳐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신 대접을 받은 직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 그 지역을 다시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극과 극이지요. 천국에 가는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에 다시 가 보았더니 아주 멋진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은 청년으로 예수를 믿은 지난 삼년 동안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제자로 칭찬을 받았으니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이겠지요 (행 6:3-5; 10:22). 당장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스사람이라 아직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할례부터 받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바울 선교 팀에 동참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 이후에도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가장 먼저 전도한 지역이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 바다를 건너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은 뒤 감옥에 갇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기적이 일어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한테 박해도 함께 당했습니다. 베뢰아로 피해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 방해를 놓습니다.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월급도 안 받고 했습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바울을 공격하니까 일단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디모데는 실라와 함께 남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왔습니다 (행 17:14).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를 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립니다 (살전 1:6; 2:14-16; 3:1-8).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쫓겨 도망을 간 뒤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한테로 급히 오라는 전갈을 받습니다 (행 17:15). 교인들을 돌봐야 하니까 실라는 남고 일단 디모데만 아테네로 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어보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고 전하라 했습니다. 갈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마귀가 막았다고 분명히 말해 주라 했습니다. 특히 고난에 대해 잘 가르쳐 주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할 거라고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바울과 동료들을 부르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 법인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 디모데가 실라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줍니다 (행 18:5; 살전 1:3; 3:6-8). 디모데가 가서 일을 잘 한 거지요? 이 고난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잘 가르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휴, 이제 살았다” 하고 썼습니다 (살전 3:8).

고난의 길을 함께

바울은 신이 나 고린도 전도도 멋지게 했습니다. 실라 및 디모데와 함께 한 해 반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후 1:19). 고린도에서는 큰 소동이 없어 말씀만 잘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교회도 꽤 커졌습니다. 그런 안정된 분위기에서 기독교 복음을 잘 간추린 편지 로마서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실라와 디모데는 도중에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행 18:21). 이듬해 세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해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실라는 이 때쯤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디모데는 계속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 19:22; 20:4).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삼 년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 20:31). 처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자꾸 비난을 해 그만두고 두란노서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해 거기서 두 해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때도 디모데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바울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게 되었다며 소동을 일으켜 바울은 결국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모데도 일단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까지 간 뒤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 뒤로는 바울 한 사람만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큰 고생을 할 것 같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제 목숨은 아무 것도 아니라 하면서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동안 디모데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행 27:1; 18:1). 보통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그렇다고 보는데 (행 20:5) 그 우리에게 디모데도 들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은 디모데가 등장한 이후 처음 나옵니다 (행 16:10). 바울이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난 죽어도 괜찮다 할 때 디모데도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고생을 할 때, 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면서 파도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할 때,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네 개 가운데 하나 말고는 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 골, 몬).

말씀으로 싸움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 정도여서 상당한 자유가 있었고 (행 28:30-31) 이후 풀려나 네 번째 전도여행을 갔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또 갇혔는데 이번에는 다른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아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순교를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무렵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통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이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편지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썼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선교여행을 디모데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로마를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딤후 1:3). 에베소는 전에 세 해 동안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양육한 곳입니다. 떠나기 전에 교회 장로들에게 “앞으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해칠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행 20:29-31). 십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 가 보니 과연 잘못된 교리, 거짓된 사상이 교회에 상당히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다시금 바로 잡으라 부탁했습니다 (딤후 1:3-11).

디모데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보통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정도 아니고 통솔도

아니고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악한 세력과 싸우되 말씀으로 싸우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딤후 1:18; 4:1-6, 13, 16; 6:3-5, 12).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바울은 다른 편지를 쓸 때도 디모데가 함께 쓴다 했고 이번에는 아예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얼마 전 에베소에서 일하라 했는데 이제는 로마로 오라 합니다.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라 외롭습니다. 동역자를 만나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라 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서 오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딤후 4:9, 21).

“내 아들이야” (딤후 2:1)!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습니다. 왜 디모데입니까? 평생 홀로 산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 하나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디모데를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릅니다 (딤후 1:2). 아들이 되려면 내 몸에서 날거나 입양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들입니다. 바울이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은 사실 더 있습니다 (딤후 1:4; 몬 1:10; 고후 6:13; 갈 4:19).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워 신앙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고전 4:15).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릅니다. 바울이 아버지 노릇을 해 버렸습니다. 디모데도 아들 노릇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시간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 2:22).

자식이 아비에게 한다는 말은 가업전수 전통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뭘 해도 자식한테는 공부하라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식당도 공장도 장사도 그렇게 몇 대를 이어 갑니다. 아들이 뭘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하시는 데 가서 같이 일합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하겠지요. 그러다가 보조 역할도 하고 조금 지나면 하나씩 둘씩 직접 해 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일하며 비법을 전수받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발탁한 이후 두 사람이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이 뭘 했다고요?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는지 곁에서 잘 지켜보면서 아들도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자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일하다 보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부자시간보다 더 잘 통합니다.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빌 2:19-20). 디모데만큼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다시없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고난 받는 제자

아버지가 갑부라면 할만 했겠지요? 권력이 좀 있어도 서로 하겠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하고 같이 고생 좀 하자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딤후 2:3). 그랬더니 디모데가 “예, 아버지”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생을 함께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서 가장 먼저 본 게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에서는 좀 나았지만 이후 바울이 겪은 갖가지 고생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요?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디모데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딤후 3:11).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 그랬기 때문에, 세 해 뒤 바울이 같이 가자 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돈 주겠다 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고난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애 다하면 마지막 부활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눅 14:28-30).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서기 전에 이미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눅 14:33). 그래서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평생 훈련시킨 제자입니다. 몇 주짜리 프로그램을 오 단계, 십이 단계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듯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삶을

함께 나눈 제자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고생하는 걸 보여 주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같이 목숨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훈련을 받은 다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는 네가 직접 고난을 받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작별하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지요? 그 눈물이 다였다면 그냥 인간의 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눈물에 담긴 뜻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디모데가 가진 거저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너와 나 두 사람이 그저 그리워 흘린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주 예수 안에서 느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신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요일 5:1).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열른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입니다 (딤후 1:2).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입니다 (고전 4:17). 바울이 가진 믿음 곧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바울과 똑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된 이유는 바울이 먼저 주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이요, 따라서 디모데 역시 바울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주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스승과 제자가 많습니다. 필요한 사람끼리 그런 사이를 만들어 좋은 기술을 전해주거나 조직을 이어나가거나 합니다. 둘만의 문제입니다. 스승과 제자 둘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교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도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가 함께 계시는 관계여야 합니다. 스승도 제자도 스승 제자로 얻히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분을 멘토로 모셨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쁠 거 없지요. 그런데 멘토의 제자이긴 한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한지 그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멘토라는 사람도 제자를 많이 보유했을 영광은 받는 것 같은데 멘토 자신이 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물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그저 전수해 주고 전수받고 하면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 거기 생명은 없습니다. 스승의 명성이 아무리 높고 수많은 제자가 대단한 자부심으로 추종한다 해도 앞서는 이도 따르는 이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라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엉터리일 뿐입니다. 고난의 길 대신 카펫 깔린 길을 간다면 발은 일단 편하겠지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저 교훈이 침투했는데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부활 영광이 가능하다는,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저 교훈이 판을 칩니다.

스승 바울이 평생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그걸 보고 배운 제자도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히 13:23). 감옥에서 막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잘 배웠지요?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생명, 주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말씀과 제자

바울이 좋은 스승이 된 것은 주 예수의 은혜와 많은 계시 가운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겠지요. 디모데가 좋은 제자가 된 것은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 바울은 디모데를 평생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의 중심 도구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보인 모범부터 말씀을 전하는 모범이었습니다. 전할 뿐 아니라 전한 그대로 자신이 실천했는데 복음을 위해 평생 고난을 받는 그게 바로 말씀을 실천한 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랜 세월 말씀을 가르칠 때 곁에서 많이 보고 배웠겠지요. 거기서는 몇 주짜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걸 함께 배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아직 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알기 전 구약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줄 배워 알았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교회 올해 주제입니다.

디모데가 배운 말씀은 그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고전 4:20). 나도 그 능력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니다 (빌 4:13).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고 참 구원을 줍니다. 가르치고, 꾸짖고, 비뚤어진 걸 바로잡고, 바로잡은 그걸 든든하게 다져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모습에 다가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의 삶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 디모데

누가 제자입니까? 디모데가 제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제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가 다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고 또 어떤 사람은 뒤를 따릅니다. 그걸 보고 스승이다 제자다 말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승이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고 우리는 다 제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 예수의 제자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길은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만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앞장 서 가시는 주 예수를 따라 오늘도 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다 제자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출발했습니다.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평생 고생하는 것도 다 보고 그렇게 고생하다 순교하는 것도 다 보고서 따라 나섰습니다. 계산 다 해 보고 나섰으니 문제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교를 전수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조직에 몸담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 디모데가 보여준 그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의 사랑에 감사해 내 삶에 주어진 고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해 그 길을 가는 그런 내가 바로 제자입니다. (권수경 목사)